

# 편의시설

인권정보자료실  
Md.h.7

## 만화로 보기

그림 장차현실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

그림 장차현실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시민연대



참지 말고 주장하라

이제 나의 주일 날은 큰 기쁨입니다

엄마! 비벼줘

인권정보자료실



## 그림 장차현실

이 만화를 그린 장차현실은 198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가로 활동해왔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딸 은혜를 낳고부터는 장애인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다.

장애인 관련 단체 회보에 연재한 '육아만화 — 은혜의 하루'란 '예쁜딸' 이야기가 장애아를 둔 부모의 공감을 얻으면서 장애인문제 관련 만화를 꾸준히 그리게 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에서 펴내는 소식지 <자유공간>에 '만화로 보는 편의시설', 장애인복지신문에 만평, 인터넷 한겨레에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야기인 '장차현실의 현실을 봐', 페미니즘 저널 <이프>에 '색녀열전' 등을 연재하고 있으며 국민일보에 생활만평을 연재하기도 했다.

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살아가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의 만화는 '어둡고, 불행한' 이미지를 띤 장애아 문제를 당당하고 밝게 그려내고 있다. 장차현실의 만화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겐 따뜻한 공감과 힘을, 비장애인에겐 장애아에 대한 편견의 눈길을 지우고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란 인식을 편하게 심어주고 있다.

**이 책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

##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를 펴내면서

이 계 준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대표

“편의시설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글쎄요, 편리하게 하는 시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하철에 있는 휠체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길에 있는 노란색 울룩불룩한 거요.”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편의시설은 때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편의시설 가운데는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와 점자블록도 포함된다. 하지만 편의시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편의시설에는 우리가 늘 이용하는 계단, 문, 복도도 포함된다. 편리함 뿐 아니라 안전함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편의시설이다.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는 어떻게 하면 편의시설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만화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또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재미있게 보면서 ‘아, 편의시설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편의시설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꾸며보았다.

이 책의 구성은 그동안 장차현실님이 장애인복지신문과 편의연대의 월간지 <자유공간>에 연재했던 만화들과 새롭게 그린 만화들을 싣고 그 옆에 만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련 글들을 함께 실어서 만화의 감동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만화를 그려주신 장차현실님,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연재된 만화를 실을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준 장애인복지신문사, 디자인을 해준 명작에 감사리를 드린다.

2000년 9월



아-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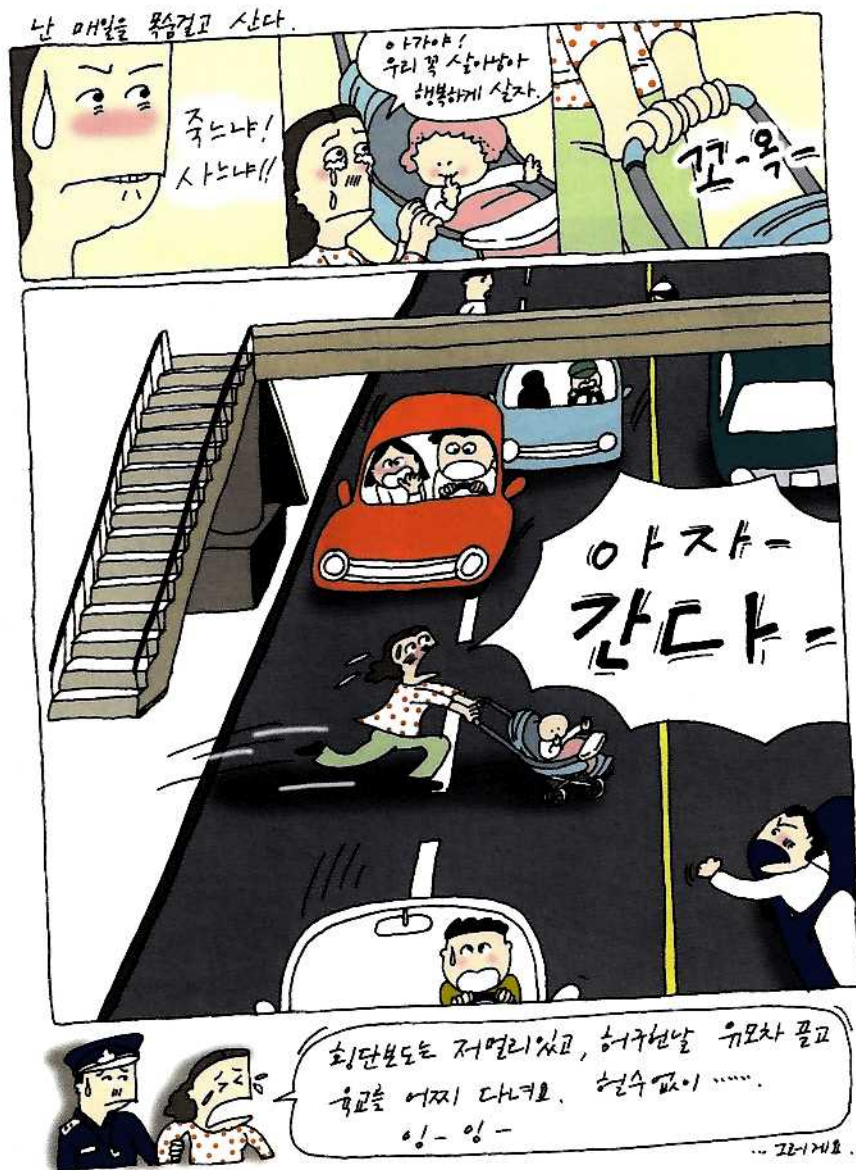
나에게는 장애인 딸이 있다. 그 축복의 딸이 나에게로 오기 전에 난 장애인의 삶이란 어느 먼 곳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다.

나는 10여년을 딸의 삶 주변을 어정거리며 산다. 사람들이 나의 딸을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되는 관계 속에서의 불평등을 본다. 난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고, 탄식의 소리도 듣게 되었다. 이러저러한 사연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나의 딸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알리고 싶다.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한 사람의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평범한 삶의 기회를 어떻게 박탈당하는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능력으로나마 시작하려 한다.

장차현실



후후... 귀여운 무대포 아줌마.

만화는 웃음이 나오지만 현실은 웃을 수 없는 아슬아슬함이 있다.

나도 한동안은 유모차 운전자였다.

아이를 안고 다니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유모차는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고마운 운송(?) 수단이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계단이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폭이 좁은 문, 울퉁불퉁한 보도...

어느 순간부터는 유모차가 커다란 짐으로 느껴질 때도 많았다.

똥하러 나다니냐고 말하는 무식한(ㄷ)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씩씩이 엄마들은 주눅들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간다.

눈을 반짝이며 경이로운 세상을 보는 아이들의 눈이 사랑스럽다.

장차현실

## 불만

“왜 돈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죠?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곳은 늘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편의시설 필요 없어요!”

“몇 명 안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꼭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린다. 물론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편의시설을 굳이 설치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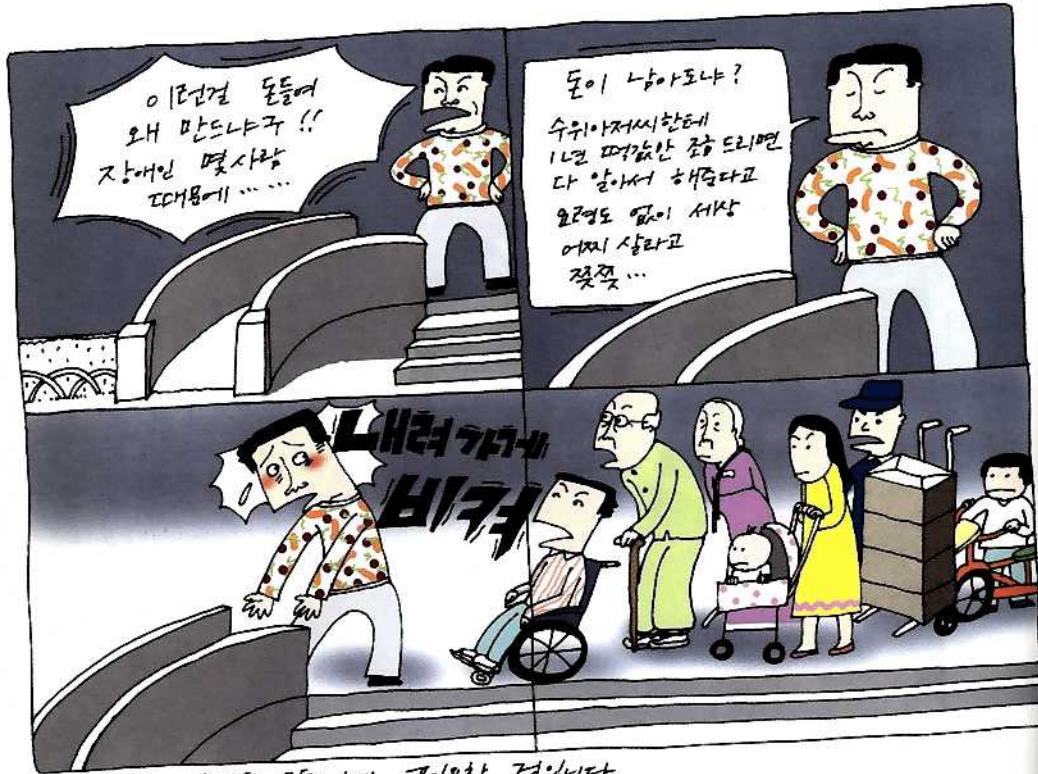
첫째, 편의시설은 자유로움과 안전함과 인간다움을 가져다준다.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는 건물을 생각해 보자.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24시간 사람이 있지는 않다. 그럼, 장애인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만약 그 건물에 화재나 지진 등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도 빨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사로가 없다면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위험 속에서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 두 가지 중의 어느 쪽이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여러분이라면 도움을 받는 쪽을 택하겠는가?

둘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경사로를 생각해 보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이용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유모차를 미는 아빠와 엄마, 손수레를 미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경사로를 이용한다.

장애인에겐 자유로움과 안전함과 인간다움을 가져다주는 편의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하다.

배용호



경사로는 우리를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늙는 것이 서러운 것은 아니다.  
 노인은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가로수 아래 쪼그려 앉아  
 담배 하나 꺼내 문다  
 팔십성상(八十星霜)  
 머리 위로 얹힌 세월의 흔적  
 저리도 짙짙한 8월의 햇살 받아  
 잠시 반짝이기도 하더니  
 이마 가득 흘러내리는 땀방울 사이로  
 이내 담배연기가 오른다

딱딱하게 살아온 80년 세월만큼  
 흐려진 노안(老眼)  
 그 안으로 속력을 늦출 줄 모르는  
 저들의 발걸음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노인을 결박하고  
 건장한 저들의 팔뚝과 발목,  
 앞으로만 치닫는 자동차 엔진소리에 묶여  
 노인은 이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어디선가 문득  
 늙고 추레한 개 한 마리 절뚝이며 걸어와  
 멍청한 눈으로 노인을 응시하고  
 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은 흠칫 두려움에 몸을 떤다.

녹슨 호미처럼 굵어버린 등허리를 펴고  
 깊은 숨 몰아쉬며 다시 길 위로 나서는 노인  
 그네의 초라한 뒷모습, 가뭇없이 사라져 가고...  
 늙는 것이 서러운 것은 아니다.  
 늙음을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박인희



## 난 외출이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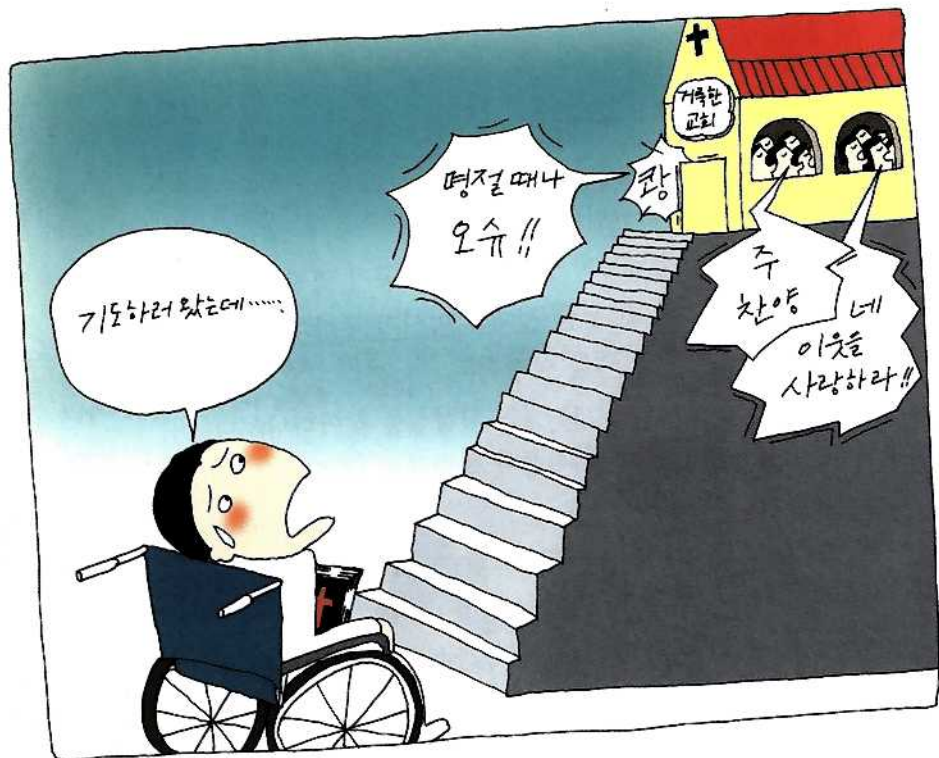
그 한번의 외출을 위해  
 전날부터 맘놓고 밥 한 공기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아다니느니  
 차라리 배고픔과 목마름이 내게는 행복이다.

휠체어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빈 주스통은  
 급할 때 나의 소변통이 되어 주리라.  
 그러면 나는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을 눈앞에 두고  
 어두운 골목길 어느 한 구석에서  
 남이 볼 새라 급하게 불일을 보겠지.  
 하지만 갑자기 배라도 아프면  
 그때는 정말 끝장이다.  
 부디 오늘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

월드컵이 열린다는 서울에서,  
 새 천년을 맞이했다는 서울에서  
 오늘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은 없다.

## 난 정말 외출이 싫다.

한 훈



## 성역은 따로 없다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또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거리에 나가보면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보이지만 장애인이 마음놓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교회는 권위의 상징처럼 수많은 계단을 가지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하는 교회도 드물다. 시각장애인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자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한 교회도 거의 없다. 교회에서 장애인을 생각할 때는 1년에 두 번, 장애인의 날과 크리스마스 때 뿐이다. 불우하고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마음놓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

교회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친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로 오라고 외친다. 하지만 정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곳이나 될까?

만약 지금 한국에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청각장애인이 되어서,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면 교회에 가실 수 있을까? 수많은 턱과 계단,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들,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울다 가시지는 않을까?

배용호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  
갈 수 있는 극장을 선택해야 한다.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다.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차별을 거부한다.

오랜만에 친구와 영화를 보는 장애인에게  
"집에나 있지 왜 나땡겨?"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나  
"승강기가 운행되는 6층에서 하는 영화를 보지, 왜 2층에서 하는 영화를 봅니까?"  
"옆동네 음식점은 1층이에요. 그리로 가세요."

우리는 이 모든 차별을 거부한다.

전정옥





봄기운 도는 3월이면 이사를 하고 싶다.

창문은 꽃무늬 커튼으로 꾸미고

현관 앞은 화분으로 단장하고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도 털어내고...

하지만 이런 상상은 꿈으로 끝이 나기 일쑤이다.

휠체어로 들어오는 집의 바닥은 항상 더럽고(땀아낼 엄두도 못 낸다),

나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키는 1m를 넘지 못하고 나의 팔은 냉동실 앞에서 멈춰버린다.

그래서 내가 즐겨 찾는 책들은 이미 바닥을 넘어 산을 이루고 있고,

텔레비전 리모콘과 오디오 리모콘은 그 무엇보다도 내 가까이에 있다.

전등을 켜기 위해서는 검토하는 사람처럼 긴 막대기로 한방에 끝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도 감수할 수 있다.

선선하던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나온 물건이 없네요!” (잉~~장애인이야... 쫓쫓)

“건물에 상처를 내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어서 다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참으로 난감하다.

전정옥

# 母情

난 아이를 낳아 키우며  
어른이 됐고 정말 기뻐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엄마인 나를,  
나의 엄마인 할머니를 알아가며  
자란다.

먼 훗날의 나의 손녀를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다.

나의 엄마가, 또 내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  
맛보며 살듯

나의 딸도  
그 즐거움 맛보며  
살길 바란다.

- 정신지체 아동인  
정은혜 엄마 -



## 장애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 일부를 전체로 부르지 말라

나는 '휠체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냥 장애인도 아닌 휠체어장애인이라고 부른다. 휠체어는 나의 신체의 일부를 보완해 주는, 나의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휠체어가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휠체어장애인이 아닌, 그냥 장애인이고, 장애인이기애 앞서 배움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고 지칭해 버린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나 많다. 양팔에 장애가 있으면, 양팔장애인이 되어 버린다. 목발을 사용하면 목발장애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휠체어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할 뿐이다. 나를 휠체어장애인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휠체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거부한다. 나의 장애로 나를 지칭하지 말라. 장애는 나의 일부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의 일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 나는 나일 뿐이다.

장애인의 자기존중감이

## 참지 말고 주장하라

—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

참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나의 불편함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남이 나의 속까지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나의 가려운 곳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싫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요구하라. 식당에서 주문하는 내 말을 듣기보다는 나와 동행한 비장애인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당당하게 주문하는 사람은 나라고 이야기하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내가 사용할 자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면,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하고 알려주어라. 의외로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참아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의 아버지, 나의 형, 나의 누나가 참아서 지금도 내가 불편을 겪는 것이다. 내가 지금 참으면, 나의 딸, 나의 아들도 역시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참지 말고 주장하라. 참지 말고 항의하라.

삶의 질을 높인다!

배음호



# 장애인의 자기존중감이

## 편견을 버려라

—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편견이다

나의 장애를 부끄러워 말라. 나의 장애를 미안해하지 말라. 나의 장애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나의 장애를 부끄러워한다면 남들도 나의 장애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의 장애로 인해 내가 도움을 더 필요로 하고, 나의 장애로 인해 내가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나의 당연한 권리이다. 왜 보장구를 하고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는가? 왜 휠체어를 타고 댄스파티에 가지 못하는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사회의 편견과 무의식이다. 내가 장애인임을 떳떳이 인정하라. 장애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 말라. 나의 휠체어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나의 목발을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라. 사진찍기를 거부하지 말라. 나의 장애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답다.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 삶의 질을 높인다!

## 나를 존중하라

—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장애인을 위한 무료와 할인을 즐기지 말라.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되, 거지근성은 버려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되 나의 의무도 다하라.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차라리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라. 특수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오히려 일반학교에 특수교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라. 공연장이나 극장에 가면 한쪽 구석에 앉지 말라. 가장 좋고 편안한 좌석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라. 나를 존중하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느낌을 존중하라. 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나의 장애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일부로 어리석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필요 없는 도움은 정중하게 거절하라. 필요한 도움은 예의바르게 청하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느낌 못지 않게 다른 이의 생각, 마음, 느낌도 존중하라. 당당하게 살라. 당당하게 살라. 당당하게 살라.

## 역지사지(易地思之)

얼마전 우연히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장애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타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인도가 턱이 많아 위험하고 좁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길로 여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다까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였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화면을 보면서 생각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하는 방송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내용의 방송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소속하여 일하고 있는 김완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를 도와 일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하여 하반신 마비를 입은 척수장애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번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글을 보고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제 E-Mail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으로 강제하여 시행하다보니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관행을 볼 수 있었으며, 눈가림식 행정의 일면도 볼 수 있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장애인 혼자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각도로 경사로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안내선이라든지 점자안내도 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통제하는 일까지 있어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문제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의 예는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싶어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의 편리성을 상실한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 또는 접이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장실이 두터운 철문으로 여닫이식으로 설치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문을 열고 닫기조차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주차 시설의 경우 폭을 3.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차시설이 다른 주차시설과 같은 폭으로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이런 사실들은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시정하도록 약속을 받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곳은 설계를 변경하여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도 보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턱 하나 하나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임산부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꾸어 간다면, 장애인도, 노인도, 임산부도,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함께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적과 격려가 더욱 아름다운 세상,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김완자(k-wanja@hanmail.net)



장애는 개성이다

편의연대에서 만든 뱃지





세상속의 흥인실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낄수 있는것은 작은 도량도 가능한 것이지요 -

## 김태동 I

수유리 빨래골에서 신월동까지  
일요일 아침이면  
누구보다도 먼 여행을 하는 사람  
김태동씨!  
혹시 그가 늦기라도 하는 날이면  
모두들 걱정을 한다.  
오늘도 전봇대에다  
신월동 가는 버스 어디서 타냐고  
문다가 문다가  
화가 나서 전봇대에다  
욕을 실컷 하고서는 지나가는  
아무 버스나 세워 실랑이하다가  
늦는 건 아닌지?  
아니면 버스안내방송이 잘못되어서  
한두 번 전이나  
한두 번 후에나 내려서  
교회를 찾다가 결국  
택시에 몸을 싣고  
입에는 불평 가득 싣고서  
교회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열린교회 반주자 김태동씨  
우리 모두를 기다리게 하던 김태동씨

태동씨  
오늘도 안내방송 없는 버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서 내리시지는 않는지...

이상록



한 사람 있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 불이야!!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화장실이 사용 중인가를 알기 위해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를 알 수 없으며, 또 반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밖에서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장실 문앞에 '사용 중' 혹은 '사용 안 함' 등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화장실 문앞에 '사용 중'이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달아두는 것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 가운데 하나는 위급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경보등**이다. 화재나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쳐도 청각장애인은 알 수 없다. 더욱이 청각장애인 혼자 멀리 떨어진 방에 있다면 더욱 알 수 없다. 그래서 화재나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비상벨과 함께 청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경보등(번쩍이는 불빛)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

배용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운전면허를 따서 스스로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바로 주차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친구 집에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차 위반 스티커이다.

물론 스티커를 받으면 며칠 내로 장애인수첩을 복사해서 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애절하게 써서 구청에 보내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표지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단속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할 바에는 스티커도 발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건 안된다고 한다. 다른 차는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장애인 표지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것은 과연 공평한 것일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차는 발과 같이 소중한다.

어차피 과태료를 면제해 주려면 스티커도 붙이지 말자!

백용호



## 보이지 않는 차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대학 입학철이 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대학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되곤 했다. 물론 요즘에도 가끔 그런 대학들이 나타나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학은 장애인에게 높고 험한 곳이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언어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부할 능력마저 없다고 판단하여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고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어쩌다 입학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장애인 스스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계단이 있으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업혀 올라가야 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은 수화통역도 안 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없으며, 도서관에 가서 도서검색을 할 수도 없다. 학교에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냐구? 천만의 말씀. 학교에서는 미리 입학할 때에 다짐을 받아둔다.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학교측에 다른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백용호





1999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랑스런 대학 졸업생 오찬식에서 한 시각장애인 대학생의 맹인안내견이 행사장 입장을 저지 당했다. 이날 오찬식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을 완수했거나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창의적 자질을 발휘한 우수 학생들을 초청한 오찬식이였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경호상의 이유로 맹인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했다.

맹인안내견은 그냥 개가 아니다. **맹인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다.** 몇 년 전에도 한 외국인이 맹인안내견을 데리고 우리 나라의 호텔에 들어가려다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 아직도 맹인안내견을 단순히 동물로 보고, 동물은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맹인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휠체어를 못타고 들어오게 하거나, 목발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으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들에게 눈을 감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은 일이다.



텔레비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나온다기에, 어린애도 스타링 썬개어 장만했다.  
근데, 어쨌어서 대형 텔레비전에만  
자막방송이 나오는거야. 이구

이제 우리 나라 텔레비전 방송들도 자막방송을 시작했다. 그전까지 소리 없는 방송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뉴스도 들을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들은 자막방송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자막방송은 폐쇄회로로 방송이 된다. 따라서 자막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에 자막방송을 볼 수 있는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판매하는 모든 텔레비전에 자막방송 수신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29인치 이상의 대형 텔레비전에만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고 29인치 미만의 텔레비전에는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따로 수신기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마도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전자회사들은 청각장애인들이 모두 큰 텔레비전만 본다고 생각하나 보다.

모든 텔레비전에 자막방송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고, 모든 비디오영화를 자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배음호